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8차 세션, 다윗의 언약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언약은 그 자체로 구체화되어 세 가지 다른 언약의 예고를 수반했습니다.

즉, 특별 은혜 프로그램 전체입니다.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왕권을 암시했습니다. 새 언약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구체화하거나 포함함으로써 아브람의 씨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으며, 창세기 22장에서 반복되었고,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실 십자가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상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우리가 말했듯이, 다윗도 언약 중재자 선지자이지만, 왕족에 초점을 맞춘 매우 특이한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전부입니다.

다윗 자신은 여전히 모세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7장, 때때로 성전 설교라고도 불리는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말해야 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즉,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이제 우리는 성전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집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은 결코 정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 그것이 그 길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장에서 그들에게 이 모든 죄를 계속 지은 다음 와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언약이었고, 왕들 스스로가 그것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을 중재했지만, 그것은 왕족의 혈통에 대한 좁은 범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말했듯이, 창세기 17장의 왕에 대한 약속에 의해 예상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약의 중재자 선지자가 될 생각은 아직 없지만, 우리는 그가 언약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권능으로 임했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도, 여기서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오순절 이전에, 어쩌면 옛 언약 아래서 우리처럼 실제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 적합한 사람을 지적하고 싶다면, 다윗이 확실히 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이 그 안에 거했다는 말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이 옛 언약 아래서 누구 안에 거했다는 말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유로 옛 언약 아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성령이 매일 당신에게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는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등등. 그 영은 다윗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 좋은 예는 때때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성경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새의 아들 다윗의 신탁,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높여진 사람의 신탁 ,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사람의 신탁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확실히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영은 그의 영과 같고,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신 신약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하거나 쓰는 말은 실제로 말씀의 형태를 취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오순절에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족장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 여기 있지만,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 중 한 명을 왕좌에 앉히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했고, 그가 무덤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몸이 썩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시편 16편을 암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들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선지자로서 우리는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런 다음 언약이 맺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다윗 언약에서도 그 패턴을 봅니다. 다윗은 이런 다양한 원정을 했고, 사무엘하 7장에서 그 후에, 좋아요, 주님께서 그의 궁전에 안식하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가 무엇을 듣거나 듣지 못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단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 이 군사적, 이 일련의 군사적 성공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현대 독자에게는 약간 모호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현대 독자에게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는 매우 명백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과 이교도 동물들이 이런 종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전쟁의 전리품 중 일부를 그들이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아니면 신의 사원을 수리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느님께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간접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백향목 궁전에 있습니다. 주님은 천막에 계십니다.

그에게 삼나무 궁전을 지어주자. 사실, 히브리어로 궁전을 뜻하는 단어와 궁전과 사원은 같다. Heikal이 그 단어다.

사실 그것은 차용어입니다. 그것은 수메르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음역입니다. 그것은 큰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전이 될 수도 있고 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은 큰 집과 궁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크고 신이시며, 큰 집, 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 다에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는 단순히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점인데, 나단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한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나단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대답합니다. 신이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주님은 그날 밤 네이선에게 말씀하시며, 아니,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네가 내가 살 집을 지어 줄 사람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천막을 거처로 삼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옮겨 다닌 곳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았느냐고 한 적이 있었는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목초지에서 데려다가 양 떼를 따라가는 것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였노라.

흥미롭게도, 이것은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나중에 말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예언하도록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직책에 주권적으로 선출했다는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초지에서 데려다가 양 떼를 따라가는 것에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를 끊어 버렸노라.

이제 나는 네 이름을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크게 만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갖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그들을 심어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들을 세운 이후로 해 온 것과 같이 말이다. 나는 또한 네게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주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네게 선언하실 것이다.

네 날이 다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쉬면, 나는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사람들의 막대기로 그를 처벌할 것이다. 사람들이 가하는 채찍질로. 하지만 내 사랑은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앞에서 그를 제거했다. 네 집과 네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네 왕좌는 영원히 굳건해질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아요, 글쎄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나단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한 나단의 첫 번째 반응은, 가서 네가 마음에 두는 대로 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는 단지 자신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셨고, 다른 점은 주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유희가 있는데, 다윗이 주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네 집, 네 집안, 네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자손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본질적인 본성, 본질적인 특성, 이 경우 주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요한복음 14:24를 읽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내일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이틀과 열쇠를 가진 마세라티가 내 차고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마법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본성에 따라 구하면 그분이 해 주실 거고, 우리의 기쁨은 완전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가 하려는 것을 요청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 집을 짓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할 사람은 다윗의 후손, 우리가 아는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우리는 그것이 입양아라는 걸 알고 있어.

주님은 당신의 아들 다윗이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 태어나고 당신의 후손이 위로부터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죄를 지을지라도, 나의 사랑과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저는 그것을 은혜로 번역하고 싶지만, 사울에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그에게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꽤 무거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로 언약 단어 쌍인 사랑과 진실 또는 제가 번역하듯이 은혜와 진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핵심, 그것이 실제로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울에 대한 꽤 무거운 진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과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당신의 왕좌는 영원히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자신을 구석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초지상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인 예수는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 왕좌는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염두에 두었을 지상의 왕좌나 왕국은 아닙니다. 글쎄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다윗 언약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편 2편은 나중에 이것을 반영하고, 저는 여기서 해당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서, 당신은 이야기된 적들로부터 안전을 얻고, 주님은 그의 왕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와 같으실 것입니다 .

왕은 그의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처벌할 것이지만, 내 은혜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시편 2편 어떤 사람들은 시편 2편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계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너는 오늘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는 말은, 글쎄, 이것은 양자 관계이고, 그게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논의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그는 어느 천사에게, 너는 오늘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동정녀 탄생의 진짜, 실제적 시작입니다. 징계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시로 이해한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축제적인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음표가 거기서 들리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Gunkel이 왕의 시편이라고 부른 것으로, 이스라엘의 동시대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는 한 괜찮습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신약에서 나중에 사용된 것은 실제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언약과 언약 관용어법, 언약 절단 관용어법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는 게 해롭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이 구절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다윗 언약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사무엘하 7장에 대해 사실인 한 가지는, 구약성서에서 신-인간 언약 체결에 대한 다른 모든 보고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언약이나 조약의 구성 요소를 담고 있는 서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7장에도 언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언약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는 달리, 당신은 나중에 다윗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7장,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문자 그대로 잘라내거나 잘라낸 것처럼 네 왕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으로 내려가 봅시다.

다윗은 관용어를 사용하여, 역대기 하 21장을 위해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거나 다윗을 위해 잘라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과 잘라내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영원히 등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불이 아니라 멍에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창세기 1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의 절단이라는 용어가 동물을 문자 그대로 절단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다윗 언약에 사용되지만, 다윗이 다윗 언약의 경우 그런 의식을 거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동물을 자르지 않고도 언약을 맺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다시피, 이것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주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등잔과 멍에는요? 글쎄요, 히브리어로 등잔이라는 단어는 nir 이고 , n- i -r로 철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램프를 뜻하는 단어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램프로 번역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 학자는 아시리아어 단어 인 니루가 멍에를 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램프가 아니라 멍에라고 주장했습니다.

니루 또는 멍에라는 용어는 항상 종주권의 멍에, 왕권의 멍에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신에게 나의 종주권의 무거운 멍에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니르는 그가 그에게 램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멍에를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생각과 멍에라는 개념은 예수 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같은 종류의 것에 대해 멍에를 의미하는 그들의 용어인 yugum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시리아적 배경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내 종주권의 무거운 멍에를 가신에게 부과합니다.

저는 거기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이교도들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내 멍에를 메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기에 좋은 일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주권자이지만, 내 멍에는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 동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소 두 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용어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멍에와 관련된 종주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예가 있으므로 모든 예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르지 않는 언약.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여기에서 사용된 언약을 끊는 것은 반드시 맹세의 통로나 희생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항상 무언가를 법적 합의로 비준하거나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 언약이 끊는 의식 없이 그렇게 식별된 또 다른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좋아요, 다윗 언약의 거래의 일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과 언약 이야기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 상권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주요 패러다임과 연관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가지 변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선지자적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자료에서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로 분류하고 그를 그렇게 식별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적들과 싸우고 물리치기 위해 그 선지자적 인물인 다윗을 통해 일합니다.

그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과 왕족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윗을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그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만, 왕의 자손의 일로 인해 그는 그들 가운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미 모세 언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왕족으로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입니다. 그는 다윗과 왕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의 일부로 할 일 중 하나는 다윗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여 이름을 떨치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스스로 이름을 떨치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네가 꽤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와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패배하거나 흩어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스스로 이름을 떨치는 것과 주님께서 네 이름을 떨치게 하는 것 사이에는 꽤 차이가 있어.

이것은 구약성서의 내용이지만, 확실히 현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내가 훌륭한 이름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욕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방향이에요. 제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아니,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세요. 당신이 대형 교회의 목사라면, 버몬트에 있는 50명 규모의 교회의 목사라면,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왕위 계승자 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9:5는 물론, 태어날 이 아이가 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자로 불릴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분명히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을 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5에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온 후, 그의 이름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부와 평화의 증가에 대해 읽으며,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며, 그때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세우고 지탱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언서에서 여기저기 언급된 이 다윗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확실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왕좌가 세워지고, 신실함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온 사람이 그 위에 앉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흥미롭게도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의

하인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이 등장하는데, 그는 셉나를 대신하여 궁전의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 값비싼 무덤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방어를 강화했으며 다가올 심판에 직면하여 흥청거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서 바빌로니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들었고, 아니 이사야에게서 아시리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판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아킴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두십니다. 그가 여는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로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집안의 예수가 다윗의 집안의 종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의 그리스도론 아래에서도 약간의 유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심하게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였을 것이고, 땅에서 잃은 것은 하늘에서 풀렸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 입니다 .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 사명, 이 권한을 주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너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너에게 예언적 진술과 발언의 특권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베드로의 몫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보고하는 종이고, 사실상 하늘에서 이미 묶이거나 풀린 것을 실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글쎄요, 이사야 55장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듣고 네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

보세요, 저는 그를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사람들의 지도자이자 사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가 나중에 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충실한 증인이고, 확실히 그는 사람들의 지도자이자 사령관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반영하지만, 그것은 뒤따를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윗에게 약속된 충실한 사랑, 헤세드, 다윗에게 약속된 은혜가 올 것입니다.

증인이 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이다 .

이것은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인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16은 이 용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된 구절이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언약이 법적으로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으로 번역된 올람이라는 단어 는 과거나 미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암시된 언약은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영원한 언약의 피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인류, 즉 우리와 새로운 하늘과 땅을 갖게 된 새 언약, 즉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특별 은혜 언약이며, 그것은 영원하며, 우리는 그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55장의 그것과 연결된 다윗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23장도 이 메시아적 인물을 예언했는데, 내가 다윗에게, 또는 다윗에게는 의로운 가지, 지혜롭게 통치할 왕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싹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을 사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는 이가 가지, 다윗의 싹,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에제키엘서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용어, 히브리어 용어, 다윗이라는 이름은 수동태이며, 사랑한다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적 개념의 사랑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나는, 그들은,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부활한 다윗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 곧 가지가 될 자, 다윗의 싹이 될 자,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비슷한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나는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돌보리라. 에스겔 34장,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왕자가 되리라.

나, 주님이 말했노라. 에스겔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 목자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다윗, 나의 종은 영원히 그들의 왕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진술을 보는 고전적인 방식은, 글쎄, 이것은 일종의 그리스도론적 또는 상징적 메시아적 유형이며, 그것은 충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다윗, 다윗이라는 용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주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왕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특정한 계보적 고지나 주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계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가 그를 소개하는 것은 대단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의 아들을 불렀고 ,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에서 그는 다윗의 아들로 식별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태의 족보에 대해 언급하자면, 숫자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히브리 문자로 된 14세대의 세 세트인 가계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형성하는 자음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가계 구조의 근간이 됩니다. 그것을 가메트리아 라고 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3권에서 그것에 대해 썼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그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윗은 모세보다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 언약과 여기서 다윗의 중요성을 식별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연설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것이라고 요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규정하고, 그의 아들에 관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사람으로, 그의 인간적 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다윗 왕은 확실히 기대되고 희망되었으며, 우리는 대중적 인정에서도 이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간단히 훑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트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합니다. 그를 따르는 두 눈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에 놀라며,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딸의 구원을 바라는 가나안 여인은 "주님, 다윗의 아들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리코의 눈먼 자들아, 다윗의 아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눈먼 바디매오, 다윗의 아들 예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등등. 예수 자신이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다윗이 이 메시아적 인물, 다윗의 아들을 이미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 그것은 성육신의 신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암시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유형론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노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유형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인 유형론이 반드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직책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혀 좋은 성격이 아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언약의 중재자 선지자로서 실제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나중에 예수에게 참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

그는 신에게 충실했고 등등. 하지만 다윗은 그의 직책으로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치기로서의 왕이라는 개념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 비문을 읽어보면 파라오를 목동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상을 보면 파라오들은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매우 흔한 말투였습니다.

왕은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양치기라는 생각은 표준적인 것입니다. 왜? 글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양떼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통치자,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동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성경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될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성육신, 약속의 실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얻은 약속, 특히 그들을 다스릴 다윗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돌아가서 다른 것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백성의 지도자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나는 그를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가 태어나기까지 수 세기가 걸릴 텐데, 어떻게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각주나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 기록해 두는 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성서의 많은 예언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옥스퍼드의 꽤 진보적인 학자였던 S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적 완벽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다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생생해서 예언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선지자들이 영에 의해 이끌렸다면,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을 통해 말하는 영이었다면, 영, 신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는 한 순간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된 거래예요. 그래서 신에게 있어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종말이 그에게 존재했고, 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시간 밖에 있고, 물론 우리는 시공간 연속체에 살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패키지의 일부인 시간 없이, 그것이 존재하는 맥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을 창조했다면, 그는 정의상 시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국에는 자체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Meredith Klein이 그것에 대해 썼고, 저는 제 1 권의 마지막에 그를 참여시켜서 조금 써야 하지만, 저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은 시간 밖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존재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미래입니다. 동시에요.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위에 있다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모든 시간이 신에게 과거라면,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언자를 통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나 설명을 매우 쉽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3장에서 그는 요시야라는 미래의 왕이 이곳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그는 이사야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키루스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예언이 일어나고,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에게서 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이 따른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를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만들었다.

시편 89편에서 우리는 또한 "내가 그를 내 맏아들로,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리라"고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인과 다윗의 왕, 또는 다윗이 맏아들이라는 주제는 신약에서 수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이 충실한 증인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 나신 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리우스파는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면, 그는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먼저 나신 분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음을 의미해야 합니다.

오해입니다. 시편 89편에서 우리는 그를 내 맏아들로 임명할 것이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맏아들은 임명적 지위, 기술적,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왕이 오실 것입니다. 이 다윗을 내가 맏아들로 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도 상속받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다윗 언약은 성전을 짓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평화를 의미하는데, 저는 그것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자, 사르 샬롬, 이사야 9장의 평화의 왕자는 이 화신한 다윗의 아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리고 우연히, 지금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나쁘지 않아. 그리스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이 그리스어 단어 뒤에 Irenaeus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Shalom, 평화입니다. Shalom의 근원적인 사상은 온전함, 건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나 때문에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너희를 더욱 온전하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샬롬의 건전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당신에게 오든. 그게 훨씬,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자 입니다 .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일치하는 성전 관련 신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모세는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광의 구름, 신현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 성막을 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주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마쳤을 때, 다윗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지었고, 제사장들은 물러났고,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특징지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따로 두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어서 거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성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의 임재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떠올려 보면,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 모세에게 샌들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이 떠나자, 그 땅은 다시 그냥 흙이 되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흙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 샌들을 신거나 신지 않고도 그곳을 쭉 걸을 수 있었을 거야. 상관없었을 거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그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이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전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이 임명에서 이 구약 성막에 대한 신약 성막의 대응물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 각자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종종 인정하듯이, 이것은 폭풍의 신현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고,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것은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돌들의 성전, 함께 기업 성전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준비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고, 그것을 진짜 성전, 진짜 거주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 큰 집 또는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전은 돌로 만든 건물이나 그 무엇, 심지어 장막이나 천막을 의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거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될 수 있고, 실제로 현존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은 사랑하는 자, 다윗입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그것을 예고하거나 예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짓고, 물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만, 다윗의 아들, 더 큰 아들, 다윗, 사랑받는 자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많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과 신약에서 읽는 이 약속들은 물론, 확실히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하나로 모읍니다.

글쎄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역동성과 그것이 수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가, 하프 연주자, 예배자로서 다윗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사무엘상 16장인데, 주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당신의 아들, 당신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를 징계할 것이지만,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서 나의 사랑이나 은혜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쎄, 이것이 은혜가 제거될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이다.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글쎄요,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의 악령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악령의 마굿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원할 때마다 악령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제를 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악령이 와서 원하는 것을 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우에 그것을 사울에 대한 심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는 그것이 사울에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에게서 그의 영을 빼앗지 않으셨지만,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악령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악령이 당신에게 올 때 그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당신은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고 전사입니다.

그는 잘 말하고, 잘생긴 남자이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양 떼와 함께 있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스는 빵을 실은 당나귀, 포도주 한 가죽,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그의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무기를 든 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다윗이 내 섬김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올 때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악령이 내려올 때마다 다윗은 거짓말쟁이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안도감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악령이 그를 떠날 것이다.

가능한 설명은 심리적 또는 감정적 안도감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음악을 어디에서나 틀어도 악마를 쫓아낼 수 없고, 사악한 영혼을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글쎄, 분명히, 나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울은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 영이 그를 공격하고 그는 자유로워진다.

그는 데이비드가 연주할 때 잠시 동안 그것을 전달받습니다. 좋아요. 그럼, 데이비드가 연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는 그저 곡을 연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울을 기분 좋게 할까요? 저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IV는 3절을 "당신은 그 분입니다"로 번역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으로 즉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방법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찬양에 거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령이 거기에 더 많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그것이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 시편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일 때, 그분은 거기에 계시며, 찬양을 환영하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말하듯이, 두 사람이 두 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 경배합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진짜 경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데이비드의 경우가 그렇다면, 글쎄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악령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떠났다. 그게 설명이 될 것이다. 어쨌든, 그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나중에, 제 말은, 다윗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에 매우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과 예언적 차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배와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레위인을 음악가로 삼았습니다. 하프라는 용어는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아삽의 아들들 중 일부를 따로 세워서 하프, 거문고, 심벌즈를 반주로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악 제작과 예언이 연결됩니다. 물론 예언은 성령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열왕기하 3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중 일부를 건너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경우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하여 북왕국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그를 돕기 위해 올라온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동맹을 맺어 모압에 맞서서 그들을 재정복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신이 반란을 일으키면, 종주권자는 그들을 재정복하고 다시 자신의 종주권 아래로 데려오려고 나섰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길을 잃고,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여기로 오게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글쎄요,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주님의 선지자가 주변에 있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인 당신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프 연주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하프 연주자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흥미롭군요. 주님의 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팔뚝 전체가 아니라,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은 칼을 휘두르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권력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좋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영인 방식입니다.

예언을 산출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야드, 손, 주님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임하는 영이며, 그는 예언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물웅덩이로 채우리라. 너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찰 것이요, 너와 네 가축과 네 다른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눈에 쉬운 일이다.

그는 또한 모압을 당신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글쎄요, 우리는 특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냐하면 악기와 연주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할 때 나오는 히브리어 용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분명히 연주, 왜 엘리사가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하는데, 만약 연주가, 다시 말해서, 그저 음악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예언을 하기 위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은 음악이 없이도 예언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연주, 경배,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구출했을 때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나 추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음악은 예언과 예배의 반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가 때때로 예언의 일을 위해 영을 초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언어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2편, 거룩한 자여, 거하시다 또는 보좌에 앉으사, 그 동사는 보좌에 앉으사 또는 거하시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칠십인역은 그것을 거룩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다,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가타역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당신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다,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번역은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잠정적인 결론은 모든 예언이 예배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맥락은 예언의 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구출했을 때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우리가 말했듯이 새로운 언약을 예상하며, 그것이 언약, 마지막 언약, 그리고 기능하는 유일한 언약, 우리가 다음에 주의를 돌릴 특별한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다윗 언약입니다.